



제목	Everyday Life in Babylonia and Assyr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ippocrene Books
발행일	1987. 9. 1.
저자	H. W. F. Saggs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07
ISBN 또는 ISSN	978-0880291279

내용 요약

2000년 이상 지속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위업 중 하나인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문명은 현대 근동 지역에서 거의 잊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명을 재조명하기 위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인들의 삶에 초점을 두어 당시 부조와 조각 등의 유물 115개의 일러스트를 통해 설명을 보강하고 있으며, 제 1장 잊혀진 문명에서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영역과 혈통, 제 2장은 두 왕국의 흥망, 제 3장은 두 왕국의 모태가 되었던 셈계 유목민 아모리족의 삶, 제 4장은 바빌로니아 사회의 필경(筆耕), 제 5장 아시리아의 전쟁, 제 6장 고대의 기술과 산업, 제 7장 법, 제 8장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제 9장 종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필경사들이 남겨놓은 설형문자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와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각지의 박물관이나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점토판 문서들이 정리·해독(解讀)·출판되고 있다. 문서 내용은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종교·문학·외교·천문학·수학·연대기 등 각 방면에 미치고 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전은 한 국가를 넘어선 광범한 지역에 적용하여 셈족과 수메르인의 전통과 민족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던 것으로서 여기에 포함된 282개의 관례법에는 경제 관련 규정(가격, 관세, 무역, 통상)·가족법(혼인, 이혼)·형사법(폭행, 절도)·민법(노예제, 채무)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